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⑮ - 대구 동화사 비로암 보광시민선방

거룡 품에서 가부좌 틀다

대구 동화사 초입의 비로암. 범천(梵天)을 누빈 '용'이 파리를 틀고 있었다. 세수 아흔 둘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범룡(梵龍) 스님은 '문' 없는 조실 방문을 열고, '말' 없이 말했다. "이 놈들, 이 놈들!" 토요일아침선정전에 들어간 재가선객들의 머리털이 쭈뼛 섰다. 천리만리 도망간 화두를 다시 붙잡아 들었다.



재가선객들이 10월1일 대구 동화사 비로암 보광시민선방에서 선원장 수련 스님의 지도로 토요일아침선정공양행사를 하고 있다.

화두로 심신을 달궈라

한국불교계의 최고령 선지식인 범룡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동화사 비로암의 보광시민선방. '거룡(巨龍)'의 품에서 30여 재가선객들이 화두를 들고 있었다. 정진의 칼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밀려오는 망상들을 가차 없이 베어내고 있었다. "몸과 마음을 화두로 혹독히 달궈라 비로소 자기공부가 된다"는 범룡 스님의 경책, 선방 안을 매섭게 휘감았다. 10월 2일 새벽 2시, 토요일아침선방 공양정진의 열기는 한껏 올라 있었다. 전날 1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한 정진은 '50분 참선-10분 포행'을 번갈아가며 가열차게 이어졌다. "말이 필요 없는 공부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화두참구지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선원장 수련 스님이 말을 툭 던졌다. 여지없이 구부러진 재가선객들의 등줄기가 곤개 퍼졌다. 다리의 통종도 순간 사라졌고, 무겁게 가라앉은 눈꺼풀은 이

내 가벼워졌다. 그래서일까? 망상에 치인 화두는 곧장 오롯해졌다. 그렇게 50분이 지나자 입승 거사의 죽비 삼성(三聲)이 재가선객들의 치열함을 잠깐 멈춰 세웠다.

'근본' 깨달으니 어딜 가나 자유

침묵을 깨고 대중들에게 "무엇 때문에 사무치게 철야공양정진의 가부좌를 틀었느냐"고 어렵게 물었다. 화두참구 2년째라는 이두선 씨(66·대구 칠성동)부터 말씀을 열었다. "사실 '공부하라'는 말씀조차 몰랐어요. 단지 불보살님들의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를 했지요. 그러다 '부르는 그 눈을 찾으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화두참구에 끌렸어요. 빼도 박지도 못하면서 의심이 나더군요.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철야정진을 하게 됐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지만, 공양정진을 하면서 화두를 꿰뚫어 잡는 힘을 기르게 됐죠."

50년 넘게 전국의 선원을 돌며 장판 때를 문했다는 홍승근(72·대구 만천동) 씨는 화두참구를 통해 망상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생활 속에서 망상이 아무리 들어와도, 잠깐 들어있다가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정진하다가 너무 힘들어 범룡 스님에게 '어렵다'고 말하면, 스님은 '다 쉬우면 다 성불하지. 부처님 사신 대로 살면 되니까, 다른 생각 말고 화두만 열심히 잡으라'라는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군더더기 없이 화두공부의 필요성과 방법을 가르쳐주셨던 거죠."

정진하다가 너무 힘들어 범룡 스님에게 "어렵다"고 말하면, 스님은 "다 쉬우면 다 성불하지. 부처님 사신 대로 살면 되니까, 다른 생각 말고 화두만 열심히 잡으라"라는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군더더기 없이 화두공부의 필요성과 방법을 가르쳐주셨던 거죠."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수련 스님은 지난 1999년 보광시민선방의 문을 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지(正智)·정진(正進)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른 불교"란 믿음 때문이었다. "정지·정진은 팔정도에 입각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자가 언제 어디서든 '인과(因果)의 두려움'을 깨닫고, 보살로서

대자비심을 얻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정지·정진입니다. 열반과 해탈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보광시민선방에서는 '부처님 정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강조한다. 매일 새벽 3시-5시, 8시-11시, 오후 2시-4시 등으로 나눠 자율적으로 정진을 한다.

특히 선원은 토요일아침선정진을 중요시 한다. 수련 스님은 "대중의 위신력은 자신의 업을 녹일 수 있다"며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승인 만큼 대중이 일주일에 한번 모여 정진하는 철야정진은 자기 공부에 접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전과 선어록 강의 병행

선원 수행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참선정진 이외, <화엄경> <서장> 등의 경전과 선어록 강의도 병행한다는 점이다. 먼저 <화엄경>의 경우, 참선 전에는 <화엄경> 1권을 반드시 독송한다.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깨달음을 설파한 내용을 담은 <화엄경> 독송이 재가선객들에게 환희심은 물론 신심을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서장> 강의도 재가불자들에게 선에 대한 안목을 키워 주고 있다. 수련 스님이 지도하는 <서장> 강의는 선 수행에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공부법을 알려줌으로써, 재가불자들에게 마음공부를 지어가는 데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선원은 이 같은 경전과 선어록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서장> 공부 끝나는 대로 <중도가> <육조단경> <전등목> 등의 선어록강의를 마련할 예정. 또 <화엄경> 독송시간을 늘려 재가선객들의 신심을 더욱 증장시킬 방침이다. (053)982-0223 글·사진/대구=김철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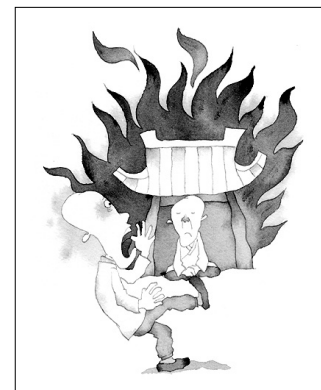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9> 황룡 선사는 불난 집에 그대로 머물다

불과 심오록 여년 전만 해도 당우 한 채에 아궁이는 여러개였다. 장작이 벌겍게 타고 있는 해질 무렵의 아궁이는 넉넉함 그 자체다. 동시에 그 불은 경계 대상의 1순위다. 야순(夜巡) 소임자들은 해가 지면 두부장수처럼 종을 흔들며 경내를 도는데 그때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궁이 불이었다. 아궁이 크기와 숫자는 그 절 살림살이의 규모와 척도이기도 했다. 대중이 함께 머무는 큰방 아궁이가 얼마나 컸는지 '지계재 장작을 지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어느 절에서나 들을 수 있는 흔한 이야기였다. 조금 더 격조 있는 말로는 '우리 절 방구들은 얼마나 잘 놓았는지 한번 불을 때면 한철 내내 따뜻했다'는 것이다. 아무진 살림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나저나 목조건물인 사찰은 불이 가장 큰 재난이다. 고암 상연(1899-1988)은 선영결식날 대중들이 모두 다



“종림의 주지인 사형께서 어쩌다가 이렇게 형색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황룡 선사는 단호하게 호령했다. “이 속된 놈아!” 사제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서 사형에게 절을 올렸다. 혜명(慧命) 때문에 신명(身命)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데 그

절에 불났는데 미동도 않고 좌선 선정에 든 한암 선사, 상원사 지켜내

비장으로 가버려 절을 비운 사이에 물 끓이는 가마솥이 걸려있던 아궁이 불이 밖으로 넘어 나왔던 모양이다. 다행히도 남아 있던 눈 밝은 학인에 의해 발견돼 부러부러 끌여 있던 수각의 물을 부어 끌 수 있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하마터면 가마솥 안에서 동시에 불을 피울 뻔했다.

것도 모르고 체면만을 살피는 사제에게 한 할(嗚)을 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아궁이나 법당이나 대비장이나 불(火)만 있으면 모두 화광삼매체가 된다.

임제종의 황룡해남(1002-1069) 선사는 불 때문에 난재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산 귀종사에 머물 때 일이다. 어느 날 밤 절에 불이 나서 대중이 야단이였다. 그런데 선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동도 않고 그대로 태연히 앉아 있었다. 옆에 있던 스님이 선사의 팔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면서 불길 피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런데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꾸짖었다. 화광삼매를 깨뜨린 것은 물론 사찰 주인으로서 이 집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사의 속뜻을 알아차린 그 스님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부안 월명암에는 선을 넘어버린 부목처사가 아궁이의 발길 솥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차서 그 안으로 처넣고는 아궁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소설(판타라)에서는 죽은 지산 스님을 그의 도반 법운 스님이 함께 정진하던 토굴 방에 앉혀놓고 집과 함께 태워 그를 다비하는 장면이 압권이다. 각각 수업료(?)의 차이는 있어도 그 메시지는 대동소이하다.

“이후 스님께서는 스승 석상자명(986-1040) 선사의 큰 법을 누구에 맞게

하지만 태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암 선사는 한국전쟁 때 오대산 상원사 법당을 '좌선상' 태우려는 군인들의 시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러자 선사는 대웅전 안에서 목숨을 걸고서 일체 동요 없는 좌선삼매로써 그들을 감화시킨 덕분에 법당을 구해낼 수 있었다. 화마(火魔)를 지키는 것도 선정(禪定)의 힘인 것이다.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아빠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빠타 센터
아빠타 마스터 박해균
전환주시는 본래는 언제나 지조를 보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정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일본입담 / 범룡 스님

범룡 스님(사진)과의 친견은 일본 입담으로 진행됐다. 군더더기 없는 말씀, 고갱이만 내 보였다.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화두참구하기가 힘든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돼. 지극정성으로 하면 되지.”
“화두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가자든 재가자든 화두를 놓치는 시간이 있지.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화두 참구할 뿐이야. 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
“화두를 들다가도 잊고 자주 놓치기도 보면, 퇴굴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저 잘 할 뿐이야.”
“공부자세는요?”
“자기가 하려는 마음을 크게 단단히 먹어야 돼. 남이 하는 것 보면 쉬워 보이며 막상 자기가 해보면 모두 어렵지. 참선수행자는 화두참구를, 염불수행자는 부처님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외야 해. 그러럼 재가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깨달음(도통)과 불치병·난치병·각종암·신병(빙의·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참선공지도자**

- **환혼동(幻魂動)**: 조상 영가와 일체 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 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무량한 功德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질병 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 체험, 빙의·해리 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 천도비법등 신비법 전수.
- **神치유명상**: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자비의 손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善空)**: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풀수와 근육 신경, 세포 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現근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現 참선공 협회장

전수반 안내
10월 21일 16:00~21:00까지 (매주 금요일 12회 과정)
무료공개전수
10월 20일 16:00~19:00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자비손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해리 치유법
칠차원 생명법
전생 치유법
내생 치유법

◆ 교육후 神임상최면사 자격증·神치유명상사 자격증·참선공 자격증 발급.
◆ 지도자 과정 전수후 사회활동 하실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후원 합니다.

● 전화 : 02)383-1319/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권신선암 神치유명상센터 神임상최면협회